

아동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및 정서적지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Correlates of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 Mother's Conversation Pattern, Maternal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Self-Esteem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과정 정 현 정*

부 교 수 문 혁 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Doctoral Student : Jung, Hyun-Jung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Conversation Patterns, Maternal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self-esteem and motivation to achiev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62 children's in the 5th and 6th grades at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Gyeonggi.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female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children. Second, the mother's conversation patterns, maternal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self-esteem were related to the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 examination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variables, the child's self-esteem and mother's open communication had an effect on the child's achievement motivation. This high level of self-esteem and motivation to act positively led to high achievement motivation.

▲주요어(Key Words) :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e),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mother's conversation pattern), 어머니의 정서적지지(maternal emotional support), 아동의 자아존중감(children's self-esteem)

I. 서 론

성취동기는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비교적 지속적인 내재적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개인의 학업의 달성과 사회에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며 나아가 사회의

번영과 발전의 성패가 달라 질 수 있다. 능력이 뛰어난지라도 성취동기가 부족하다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반면에 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꾸준한 노력으로 결국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또한 성취동기는 개인 자신과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행동이나 기술, 사고 등을 학습하게 하는 지적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성취동기는 후기 아동기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내면화되므로(김경희, 1998), 학업성취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유능한 사회

* 주 저 자 : 정현정 (E-mail : estel0513@naver.com)

** 교신저자 : 문혁준 (E-mail : mhyukj@unitel.co.kr)

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후기 아동기의 성취동기 증진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의 주된 대상이 청소년에 집중(성태동, 2003; 위영미, 2003; 이운우, 2003)되어 있어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 아동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 특성 변인으로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의 차이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나타낸 연구(김진 등, 1995; 이종민, 2008; 정갑순, 2002)와 남아가 여아보다 성취동기가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보경, 2001; 김만경, 2002; 양연숙, 2009)가 있다.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이 학업성취가 높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전찬열, 2008; 한순미, 2004; 황혜연, 2006), 인지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성취동기는 아동의 학업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고 하여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정원식, 2000).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연구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취업의 영향에 대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이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정태인·유홍준, 2002)가 있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기도 하고(이정환, 2002) 긍정적 관련성을 발견하기도 한다(이현주, 1999). 이러한 아동의 성별과 학업성적 및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직접, 간접적으로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아동은 후천적으로 부모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당 부분 자신의 성취의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한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다. 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상대방과 교환함으로써 상호간에 느끼는 감정을 통해,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이상수, 2001).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자녀의 성장 발달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백승미, 2003). 의사소통유형에 관한 Bames와 Olson(1982)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고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원들이 분명한 의사소통 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상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반면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살펴 본 아동의 성취동기는 특히 부모관련 변인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성훈(2002)은 어머니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부모-자녀 간에 있어 양 방향적 의사소

통이 일 방향적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비해 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지녔다고 보고 하였다(박성주, 1986).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력자에 의해 제공되는 공감적 이해, 존중, 솔직성 등의 태도로 설명하는 촉진적 의사소통은 학습자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Cartwright & Lerner, 1963; Truax, 1966)을 하며,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들은 성취동기를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왔다(송인섭, 1989; 이용남, 1988; 황정규, 1987; Bloom, 1986; Culler & Holahan, 1980). 반면에 성취동기를 저하시키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부모의 지위에 입각해 복종을 강요하며 행동을 통제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아동의 성취동기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최경순·정현희, 199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아버지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대화의 양이 많은 어머니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어머니만을 의사소통유형의 대상으로 보아 어머니-아동 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유형 외에 부모의 자녀관계에 대한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성취동기와 관련하여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애정 등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김의철, 2003; Park, 2001). 부모의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고, 특히 어머니의 온정성과 애정 지향적, 자율 지향적, 합리적 태도 등이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김주연, 1994; 민숙정, 1990; 홍성훈, 2002; 이운경,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한 요인인 정서적지지만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Cobb, 1976)이자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높이 평가되고 수용되고 있다는 지지(Cohen & Hoberman, 1983)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과제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무하고 지지하면 아동은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안정감을 가지고 과제해결을 즐기며 이를 해결하려는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는(Connel et al., 1994) 반면, 과제에 실패했을 때 처벌하거나 성공을 인정해주는데 인색하면 아동은 과제를 두려워하고 낮은 성취동기를 보고하였다(Burhans & Dweck, 1995).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온정성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정서적지지와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다.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성취동기가 높았으며(이운경·도현심, 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님, 2006). 이처럼 양육행동의 한 요인인 정서적지지, 자녀에 대한 격려와 수용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높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자녀의 성취동기 육성에 효과적이었다(Rosen & D' Andrade, 1959). 성취를 이뤄냈을 때는 부모로부터 많은 정서적인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성취욕구와 동기를 더욱 발달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머니의 정서적지지와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살펴 지지의 중요성을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 자체로 높은 성취동기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Rosenberg(1978)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므로 여러 측면에서 잘 적응을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불안,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 재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감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와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띤다고 하였다(김주년, 1994; 차상희, 1998). 또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성취동기가 낮아진다고 하였다(조영란, 1993).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높은 성취동기를 갖는다고 하였다(김주영, 2005).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은 성취동기와 관련되었다(김애리나, 1980; 홍성은, 2002; Aronson & Mettee, 1968; Sigall & Glould, 1977).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는 신념으로 아동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선정하여 관련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아동기 후기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아동 후기를 지나 중학교에 진학하면 보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함으로 후기 아동기의 성취동기 증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학업성취 등의 다양한 성취행동에 영향을 주는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시하여 아동의 보다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아동의 성별, 성적,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취동기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네 곳의 5, 6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아동 262명(남아129, 여아133)이다. 본 검사에 앞서 연구도구의 타당성과 변별력을 검증하기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 결과 연구도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 11월 22부터 11월 2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배부,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배부 설문지 중 300부를 모두 회수하였고, 이중 누락, 이중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62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남아와 여아가 각각 129명(49.2%), 133명(50.8%)이었으며 5학년이 165명(63%), 6학년이 97명(37%)이었고 아동이 지각한 성적은 '상'집단이 102명(38.9%), '중·하'집단이 160명(61.1%)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학졸업이 146명(55.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대학원 이상 졸업이 86명(32.8%), 고등학교 이하가 30명(11.5%)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졸업이 152명(58%)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 졸업이 65명(24.8%), 고등학교 이하가 45명(17.2%)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장이 있는 경우는 126명(48.1%), 직업이 없는 경우는 136(51.9%)로 비슷하였다. 아동의 지각한 가정의 경제사정은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6명(36.6%)이었고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9명(56.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17명(6.5%)로 가장 적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어머니-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혜영(1990)이 변안한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간 의사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262)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129	49.2
	여	133	50.8
학 년	5학년	165	63
	6학년	97	37
성 적	상	102	38.9
	중·하	160	61.1
부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30	11.5
	대학졸업	146	55.7
	대학원이상	86	32.8
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45	17.2
	대학졸업	152	58
	대학원이상	65	24.8
어머니 직업유무	직업 있음	126	48.1
	직업 없음	136	51.9
경제사정	상	106	36.6
	중	149	56.9
	하	17	6.5

<표 2> 연구도구의 문항수와 신뢰도

연구도구	문항수	Cronbach's α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개방형	.90
	문제형	.73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7	.92
아동의 자아존중감	10	.82
아동의 성취동기	29	.80

소통 측정도구(PACI)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민혜영, 1990; 정태희, 1995),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의 내용이 아동 후기의 대상에게도 적합하다고 보고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두 개의 하위척도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척도는, 개방형의사소통 척도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억압을 느끼지 않으며,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두 번째 하위 척도는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개방형과 문제형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문항이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 척도는 개방형(10문항)과 문제형(10문항) 이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

통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2)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박지원(1985)를 기초로 한 성영혜(1993)의 척도 가운데 '정서적지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신다.',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신다.'와 같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머니의 사랑, 공감,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가 1986년 수정 보완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충희(1995)가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매겨진다. 자아존중감 점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부정적 문항 5개의 경우, 응답 점수를 역산하며 긍정적인 문항에 대한 5개의 점수와 합하여 총 자아존중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가능한 총 점수 범위는 10점~ 50점이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4) 아동의 성취동기

아동의 성취동기는 Herman(1970)의 성취동기검사(Prestatie Motivatie Test)를 홍성훈(2002)이 번안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중요한 일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만약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일을 잘못했다면, 나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위해 계속 노력 한다', '내가 나의 학업에 세우는 기준은 높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어진 문항의 내용에 대해 아동의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낸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4 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가운데 선택하게 되어 있다. Cronbach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변인에 어머니의 의사소통,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취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동의 성별, 성적,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의 성취동기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서는 개방형, 개방형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정서적지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남아, 여아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녀차이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있어서만 남아($M=2.99, SD=.32$)보다 여아($M=3.02, SD=.33$)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61, p<.01$)를 보였다. 즉,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성취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성적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중 개방형 의사소통에서 '상' 집단($M=4.06, SD=.79$)이 '중·하' 집단($M=3.69, SD=.81$)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폐쇄형 의사소통에서는 '상' 집단이

<표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의 차이 (N=262)

변인	연구집단	연구집단		t
		남아(n=129) M(SD)	여아(n=133) M(SD)	
의사소통유형	개방형 의사소통	3.78(.79)	3.90(.85)	-1.18
	문제형 의사소통	3.44(.65)	3.53(.65)	-1.11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3.40(.56)	3.39(.62)	.12
아동의 자아존중감		2.99(.46)	2.99(.51)	-.06
아동의 성취동기		2.92(.32)	3.02(.33)	-2.61*

*p<.05

<표 4> 아동의 성적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의 차이 (N=262)

변 인	연구집단	상(n=102)	중하(n=160)	t
		M(SD)	M(SD)	
의사소통유형	개방형 의사소통	4.06(.79)	3.69(.81)	3.65***
	문제형 의사소통	3.59(.71)	3.42(.81)	1.89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3.46(.63)	3.35(.57)	1.48
아동의 자아존중감		3.15(.49)	2.89(.46)	4.31***
아동의 성취동기		3.07(.35)	2.90(.30)	4.02***

***p<.001

<표 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의 차이 (N=262)

변 인	연구집단	취업모(n=126)	비취업모(n=136)	t
		M(SD)	M(SD)	
의사소통유형	개방형 의사소통	3.80(.87)	3.88(.77)	-.79
	문제형 의사소통	3.52(.70)	3.45(.61)	.81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3.39(.62)	3.40(.58)	-.05
아동의 자아존중감		2.98(.50)	3.00(.47)	-.37
아동의 성취동기		2.97(.32)	2.97(.33)	.12

'중·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적지지에서도 '상' 집단이 '중·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상' 집단(M=3.15, SD=.49)이 '중·하' 집단(M=2.89 SD=.46)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성취동기도 '상' 집단(M=3.07, SD=.35)이 '중·하' 집단(M=2.90 SD=.30)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적에 따라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취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고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의 성취동기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취동기의 관계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개방형, 문제형),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개방형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취동기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유형은 -.46,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72,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53,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아동의 성취동기는 .4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55, 문제형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40, 문제형 의사소통과 아동의 성취동기는 -.3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51로, 아동의 성취동기와는 .43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성취동기는 .50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개방형의사소통유형, 문제형 의사소통유형,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성취동기는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이들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취동기의 관계 (N=262)

	1	2	3	4	5
1. 개방형 의사소통	1				
2. 문제형 의사소통	-.46***	1			
3.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72***	-.55***	1		
4. 아동의 자아존중감	.53**	-.40***	.51***	1	
5. 아동의 성취동기	.44***	-.30***	.43***	.50***	1

p<.01, *p<.001

<표 7>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N=262)

독립변인	아동의 성취동기						
	I단계		II단계		III단계		
	B	β	B	β	B	β	
어머니의 의사소통	개방형 의사소통	.37	.38***	.25	.26**	.15	.15*
	문제형 의사소통	-.16	-.13*	-.10	-.08	-.03	-.03
정서적지지			.38	.20*	.25	.13	
자아존중감					.57	.34***	
F값	33.51***		24.53***		27.69***		
R ²	.21		.22		.30		
R ² 변화량			.01		.08		

*p<.05, **p<.01, ***p<.001

3.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각각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각 변인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계수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지수는 1.4~2.4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계수도 1.85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에 제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β=.38, p<.001)과 문제형 의사소통유형(β=.13,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설명력은 21%였다. 2단계에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투입하였더니 1%의 설명력증가를 보여 어머니의 정서적지지(β=.20, p<.05)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8%로,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 문제형 의사소통유형,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총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자아존중감의 모든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β=.15, p<.05)과 아동의 자아존중감(β=.34, p<.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정서적지지가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성취동기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내려는

의욕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성취동기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을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라고 보아 상관관계를 밝히고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 아동의 성적,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및 정서적지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및 정서적지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으나 아동의 성취동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지각하는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권혜진, 199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서적지지에서도 성차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학령기 남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김순혜, 2003)나 어머니가 학령 후기 남녀 아동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선희·도현심, 2007)와 유사하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서도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권혜진(199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남녀 성차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결과는 요즘 어머니들은 과거에 비해 자녀양육 시 점차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성취동기에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취동기가 높았다는 결과(이경남, 2006; 이미숙, 1994; 하상길,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고 성차가 없었다는 선행 연구(김경옥, 1992; 이은진, 2007)와는 일치 하지 않으며 남자 중학생이 여자 중학생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나타냈다는 연구(민숙정, 1990)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성별 간 차이가 본 연구 뿐 아니라 선행연구들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에는 여학생도 남학생과 다르지 않게 부모나 교사 등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성취적인 노력과 성취에 지지를 받으며 성취적인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차이점이 점점 없어져 가거나 오히려 여학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취동기에 대한 성별 간 차이의 일관된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적에 따라 살펴보면,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취동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개방형의사소통유형,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취동기 모두 성적이 '상'인 집단이 '중·하'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학업적 유능감

이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연구(이경남,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적과는 비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조수정, 2002; 박현지, 2003; 공태수, 1998)와 학업성적은 전반적인 자아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김경원, 199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적이 '상' 집단의 아동들이 개방형의사소통유형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고 한 결과를 보여 성적 우수 집단이 어머니와의 개방형의사소통을 성적부진 집단에 비해 많이 나누고 있다는 결과(박춘성, 2005)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학업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박현진, 2003)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이 이 시기 아동의 중요한 과제수행의 목표이고 성취과제가 대부분 학교 시험이나 학습과 관련된 학업적인 영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공하여 아동 자신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및 정서적지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힌 선행연구(권혜진, 1993; 김영애, 1990; 김정희, 1987; 박정선, 1986; 신수정, 1994)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선행연구(권혜진, 1993; 민혜영, 1990; 오연옥, 1987)와 일치하며 Hock(1980)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어머니의 사고에 많은 결과를 가져와서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각도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성취동기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개방형의사소통유형으로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낮았고, 정서적지지가 높았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개방형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아지고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아지면 아동의 성취동기가 낮아진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박성주, 1987; 현주, 1979; 박화영, 1972; 홍성훈, 2002)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은 사회의 단위이며 인간성장의 터전이고 그 안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자녀의 성장 발달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방형의 의사소통을 보이는 어머니는 정서적지지가

높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보이는 어머니는 정서적지지가 낮았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적지지가 낮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과제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무하고 지지하면 아동은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안정감을 가지고 과제해결을 즐기며 이를 해결하려는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는(Connel et al., 1994) 반면, 과제에 실패했을 때 처벌하거나 성공을 인정해 주는데 인색하면 아동은 과제를 두려워하고 낮은 성취동기를 보고한 연구(Burhans & Dweck, 199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성취를 격려하고 지지할 때 아동의 성취동기는 높았다는 결과(Glasgow et al., 1997)와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성취동기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이운경 · 도현심, 2005)와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격려를 해주면 자녀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주변을 탐색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어 성취동기를 높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가 개방형의사소통을 하고 정서적지지를 해줄 때 높았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게 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김애리나, 1980; 홍성훈, 2002; Aronson & Mette, 1968; Sigall & Gloud, 1977)과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정서적지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개방형의사소통유형,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높은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도록 한다는 연구결과들(정원식, 2001; 홍성훈, 2002; Aronson & Metee, 1968)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보다 높은 활력을 가지고 더 나은 수행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Raynor & Entin, 1982)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인 관계를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며 능력에 대한 신념과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형성에 있어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Kaluger & Kaluger, 1979).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높은 경향이 있어 성취에 대한 확신이 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성취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 등의 지지를 적절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아동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여 성취동기 향상은 물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이었다. 이는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성취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연구에서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한수연, 2006)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초등학교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주운용, 2000; 한승미, 2005; 기현주, 2004)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의 생각에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경청하는 자세와 무조건적인 존중을 통해 자녀가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증진되고 아동의 성취동기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사춘기로 접어드는 아동 후기의 자녀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심취해 부모와의 대화단절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어머니의 정서적지지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김주년, 1994; 민숙정, 1990; 홍성훈, 2002; Adous, 1975)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성취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온정성과 애정 지향적, 자율 지향적, 합리적 태도를 강조한 연구결과들(박영신 · 김의철, 2002; Park, 2001), 배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시하는 등의 온정성이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인다는 기존 연구결과들(Hollanberg & Sperry, 1950; Rosen, 1956; Salili, 1980; Winterbottom, 1953)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자녀는 이러한 어머니와의 긍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평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성취에도 관심을 보이고 좌절을 견뎌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줄 때 자녀는 지속적으로 성취에 대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매사에 좀 더 잘해보고자 동기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김성숙, 2000)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정서적지지는 모두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개방적이며 정서적지지를 받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높은 성취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며 정서적지지를 해주며 아동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서울, 경기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만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으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유형 또한 중요한 변수로 추후연구에서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변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만을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적용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아동의 의사소통, 정서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변인을 통해 아동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의 성취동기 증진에 필요한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서 아동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개입해야 할지, 성취동기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어떤 영역을 포함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적 방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공태수(1998).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창의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현주(2004). 아동용 성취동기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원(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 사이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만겸(2002). 영재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 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 · 이신숙 · 신효식(1995). 아버지 역할 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7(1), 47-55.
 김성숙(2000). TIMSS-R 배경변인 국제비교 결과와 해석. 우리나라 중학생의 수학과학 성취결과, 국제수준은 어떠한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김순혜(2003).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4), 1-12.
 김애리나(1980).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 성취기대와 지속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애(1990). 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희(1993).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년(199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성취동기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영 (2005).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내적 성공귀인의 경로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숙(1980).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충희(1995). 해외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인(1989).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주(1986). 韓國靑少年의 成就動機에 關한 一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혜(1994).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인식에 있어서 연령과 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 김의철(2003). 한국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정선(1986). **모의 직업 및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청소년기 남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춘성(2005).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학생과 성적부진학생의 특성**.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진(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미(2003). **부모자녀의사소통과 다중의 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태동(2003). **성취동기, 성적과 학습압력 유형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수 정(200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전사춘기자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영미(2003).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연숙(200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른 성취동기와 성취에 관한 비교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8(3), 197-220.
- 이경남(2006).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61-174.
- 이경주 · 신희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금 · 박옥임 · 이경주(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25.
- 이만중(1983). **고아학생과 일반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1994). **내-외 통제성과 성취동기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 반발심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 도현심(2007).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5), 269-284.
- 이용남(1988). **학교학습의 심리적 결정변인, 학교 학습탐구: 울산 이용걸 교수님 정년기념논문집**.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운경(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우(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2007).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 김규원(1987).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 이정환(2002). **가족환경, 과외, 성적**. **한국사회학**, 36(6), 195-213.
- 이종민(2008).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귀인양식과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5(4), 37-50.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9). **여중생의 진로태도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모녀의 심리배경요인과 관계요인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7(3), 279-321.
- 장인숙(2001).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순(2002).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 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원식(2000). **인간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정원식(2001). **인간의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 정태인 · 유홍준(2002). **주부의 취업이 청소년 자녀의 인성, 학업과 교유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13(1), 269-297.
- 정태희(199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찬열(2008). **영재집단과 일반집단의 학습동기와 효과에 관한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7(2), 141-159.
- 조영란(1993). **부부갈등과 자녀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윤웅(2000). **초등학생이 지각한 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지능 및 성취동기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상희(1998). **위계적 자아개념 모형과 성취동기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현수(1999). **중고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과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 정현희(1998).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성취도기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5(2), 149-163.
-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하상길(2007). **아동의 외향성 수준에 따른 성취동기의 차이**.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연(2006). **부모기대 및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순미(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29-350
- 한승미(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 · 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황정규(1987).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황혜연(2006). **교사 효능감 및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ber, B. K., & Thomas, D. L.(1986). Dimensions of fathers' and mothers' supportive behavior: The case for physical affe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4), 783-794.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 H. Mc Cubbin, H. L.,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 N: Univ. of Minnesota.
- Barnes, H. L.,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loom, B. S.(198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lerning*. N.Y.: Mc Grawhill.
- Burhans, K. K., & Dweck, C. S.(1995). Helplessness in early childhood: The roll of contingent worth. *Child Development*, 67, 606-620.
- Cartwright, R. D., & Lerner, B.(1963). Empathy, need to change, and improvement with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on Psychology*, 27(2), 138-114.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200-314.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nnel, J. P., Spencer, M. B. & Aber, J. C.(1994). Educational risk andresilience in Africa-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outcomes school. *Child Development*, 65(2), 493-506.
- Culler, R. E. & Holahan, C. J.(1980). Testanwiety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effects of study-related behavior. *Journal of Eucational Psychology*, 72, 16-20.
- Glasgow, K. L., Dornbusch, S. M., Troyer, I., Steinberg, I., & Ritter, P. L.(1997). Parenting style,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ous high schools. *Child Development*, 68(3), 507-529.
- Hermans, H. J.(1970). A questionnaire meas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4), 353-363.
- Mc Clelland, D., Atkinson, J., Clark, R., & Lowell, E.(1953). *The achievement motive*. N.Y. : Appleton- Century-Crofts.
- ParkY. S.(2001). Adolescent achieve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vited speaking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Scientific Advances in Indigenous Psychologies: Empirical, Philosophical, and Cultural Contributions. pp. 1-35. October, 29-November, 1. Institute of Ethnology,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 Raynor, J. O., & Entin, E. E.(1982). *Motivation, career striving and aging*. N.Y.: Hemisphere.
- Rosen, B. C.(1956). The Achievement syndrome; a psychocultural dimension of soci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al, Review*, 21, 203-211.
- Rosen, B. C., & D' Andrade, R.(1959). The Psychological origin of achievement motivation, *Sociometry*, 22, 185-218.
- Rosenberg, F. R., & Rosenberg, M.(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4.
- Sidney(1977).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Y. : MacGraw-Hill Co.
- Sigall, H., & Glould, R.(1977). The effects of self esteem

and evaluator demandingness on effort expendi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12-20.

Truax, C. B.(1966). The rapist empathy, genuineness, and warmth and patient therapeutic out 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5), 390-401.

Winterbottom, M.(1953). The relation of need for achievement in learning experiences to independence and mastery. J. W. Atkinson(ed.), op. cit., 453-478.

접수 일 : 2011년 07월 15일

심사 일 : 2011년 07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9월 07일